



## 논문목록

Comparison of chest radiograph reading methods for assessing progress of pneumoconiosis over 10 years in Wittenoom crocidolite workers.

de Klerk NH; Musk AW; James A; Glancy JJ; Cookson WO  
*Br J Ind Med* 1990, 47(2) p 127-31

Cutaneous haemangioendothelioma: a possible link with chronic exposure to vinyl chloride.

Davies MF; Curtis M; Howat JM  
*Br J Ind Med* 1990, 47(1) p 65-7

Exercise capacity in coal workers' pneumoconiosis: an analysis using causal modelling.

Cooper JK; Johnson TP  
*Br J Ind Med* 1990, 47(1) p 52-7

Analysis of chromosomal aberrations in workers exposed to low level benzene.

Yardley-Jones A; Anderson D; Lovell DP; Jenkinson PC  
*Br J Ind Med* 1990, 47(1) p 48-51

Inhibition of creatine kinase activity by ethylene oxide.

Matsuoka M; Igisu H; Inoue N; Hori H; Tanaka I  
*Br J Ind Med* 1990, 47(1) p 44-7

Silica exposure, silicosis, and lung cancer: a necropsy study.

Hessel PA; Sluis-Cremer GK; Hnizdo E  
*Br J Ind Med* 1990, 47(1) p 4-9

Inhaled particle deposition and body habitus.

Graham DR; Chamberlain MJ; Hutton L; King M; Morgan WK  
*Br J Ind Med* 1990, 47(1) p 38-43

Neurotoxic effects of styrene: further evidence.

Cherry N; Gautrin D  
*Br J Ind Med* 1990, 47(1) p 29-37

Stress at work and mental health status among female hospital workers.

Estryn-Behar M; Kaminski M; Peigne E; Bonnet N; Vaichere E; Gozlan C; Azoulay S; Giorgi M  
*Br J Ind Med* 1990, 47(1) p 20-8

## 주요 논문 초록

### 『스웨덴 유리공장 근로자 코호트의 사망률과 암이환율』

저 자 : Wingren G, Englander V

출 처 :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1990;62  
(3) : 253-257

1964년과 1985년 사이의 어느 시점에서 한달 이상 고용된 공예유리 근로자들로 이루어진 625명 남성의 코호트에 대하여 암발생률과 원인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전체 사망자수는 국가 전체의 사망률에서 예상되는 98.9에 비교할 때 97이었고, 지역의 사망률에서 기대된 82.9에 비교할 때 97이었다. 전체 암사망률은 어느정도 증가하였는데(국가사망률과 지역사망률인 22.3과 18.9와 비교할 때 26으로 관찰되었다) 노출기간과 관련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폐암의 경우(각각 4.2와 2.5로 예상되는 반면에 6으로 관찰됨), 대장암(두지표가 1.6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4로 관찰됨), 후두암(각각 0.2와 0.1로 예상되는 반면에 0.2로 관찰됨), 전립선암(각각 3.0과 2.4로 예상되는 반면에 4로 관찰됨)이 특히 주목된다. 이러한 암의 대부분은 유리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립선암을 제외하고서, semicrystal유리나 heavy crystal유리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남성들에게서 많이 발생되었다. 허혈성 심장질환(32.1과 30.9가 예상되는 반면에 39로 관찰됨)과 뇌혈관 질환(7.3과 6.5가 예상되는 반면에 11로 관찰됨)에 의한 사망위험의 증가는 비록 노출기간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는 않았으나 관찰되었다. 위험은 특히 유리정제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높다.

흡연 습관을 대략 통제하였을 때도 유리공장 근로자들의 폐암과 허혈성 심장질환의 과다한 위험이 추가되어 흡연과 유리는 혼란변수로 작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소음으로 인한 청력 손실과 혈압』

저 자 : Milkovic-Kraus S

출 처 :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1990;62  
(3) : 259-260

이 연구는 85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85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대조군인 85명의 근로자들은 작업환경에서 85dB보다 높은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소음에 노출된 집단은 청력측정 결과 청력장애가 있었다. 통계처리는 Mann-Whitney test를 사용하였다.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이 소음이 노출된 집단에서 상대적인 증가를 보였다.

### 『빌딩증후군과 관련된 실내공기의 질과 인적 요인』

저 자 : Norback D, Michel J, Widstrom J

출 처 : Scand J Work Environ Health 1990; 16  
(2) : 121-128

“빌딩증후군”(sick building syndrome)은 눈, 피부와 상부기도를 자극하고 두통 및 피로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환경적인 요인과 인적 요인에 노출되어 생기는 증상들간의 관계를 조사하고 빌딩 증후군이 계속 생기는 직원들에게 다중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내 탄화수소 농도가 증상들과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실내온도, 습도, 포름알데히드나 이산화탄소 농도는 증상과 관련이 없었다. 인적 요인으로서 호흡기 과반응과 조되는 빌딩증후군과 관계가 아주 깊었다. 다른 요인들로는 흡연, 정신적인 요인, 전기와 관계된 일을 한 경우 등이 있다. 아토피(atopy), 연령, 성별이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증상과는 관계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빌딩 증후군은 여러 요인에 의한 것이며 실내의 탄화수소와 개인적인 요인에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